

광산 갱도

메인 갱도에서 갈라진 수평 또는 비스듬한 갱도는 광부들이 은광맥을 캐기 위해 파낸 것으로, 대부분 산을 비스듬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갱도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함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히 풍부한 광맥을 찾아 깊숙이 파 내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갱도는 메인 갱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곳에도 있습니다. 이 굴들은 특정 광맥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파낸 것으로 보이는데 광맥이 순도가 낮았을 경우에는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도 안이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갱도는 매우 체계적으로 파내려 갔습니다. 어떤 광맥을 따라갈지 결정하는 광부들은 광맥 주변의 암석의 일관성과 색깔로 광맥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끝과 망치만으로 산비탈을 파내려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성이 낮은 광맥을 떠나 재빨리 다음 광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광부라도 그들의 작업은 위험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분진이 자욱한 갱도에서, 때로는 구연산을 함유한 매실 절임이 채워진 천 마스크를 쓰고 좁은 틈새로 들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굴에서 조개껍질로 만든 석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광석 조각을 꺼내야 했습니다. 10 살짜리 아이들도 광산에서 일했고, 30 살까지 살았던 광부들은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